

우리나라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실태와 인식도

- 한방의료기관에서 외래 및 입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방의료 이용실태를,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방의료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보았음

- 한방의료는 주로 고연령층에서, 근골격계질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향후 한방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치료효과의 과학화·합리화, 한방건강급여 확보 노력, 한약재의 안전성 추구, 양·한방협진 활성화를 통한 자원의 효과적 활용과 국민부담 경감 등이 필요함

1. 개요

- 양방(洋方)과 한방(韓方)의 이원화된 공급체계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현장에서 의·한의간 협력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 향후 한의학 분야의 발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신력 있는 한방의료 자료가 필요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전국 471개 한방의료기관의 이용자(외래 및 입원)를 대상으로 한방의료 이용실태를, 전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방의료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음

〈표 1〉 한방의료 이용 및 인식도 조사 개요

구분	한방의료 이용실태	한방의료 인식도
조사대상	한방의료기관 이용환자 총 5,507명 (외래 3,926명, 입원 1,581명)	전국 만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조사기간	2011. 8. 25~9.30	2011. 10. 5~10. 11
조사방법	전문조사원의 면접조사	전화조사
주요 조사내용	한방의료 이용 실태(외래 및 입원)	한방의료 인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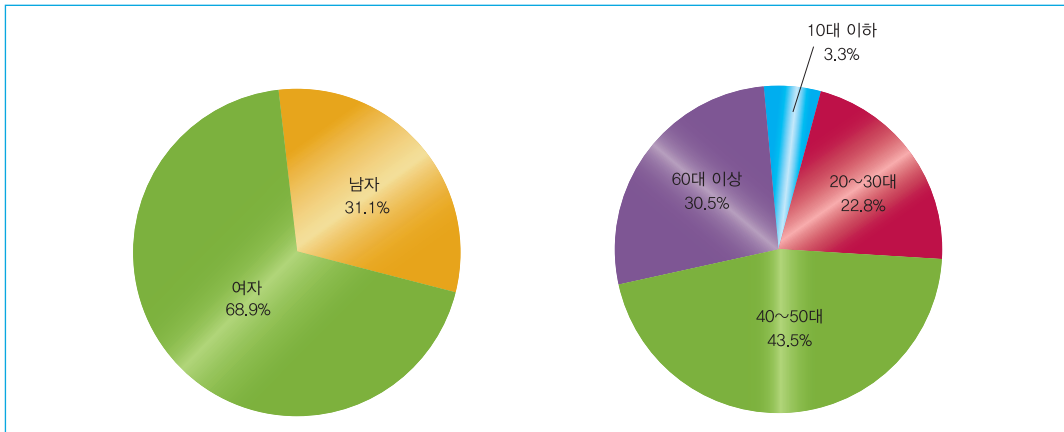
2. 한방의료 이용실태

성별·연령별 한방의료 이용 차이

○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한방의료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여성의 이용 비율(68.9%)은 남성의 이용 비율(31.1%)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40~50대의 중장년층(43.5%) 및 60대 이상 고령층(30.5%)의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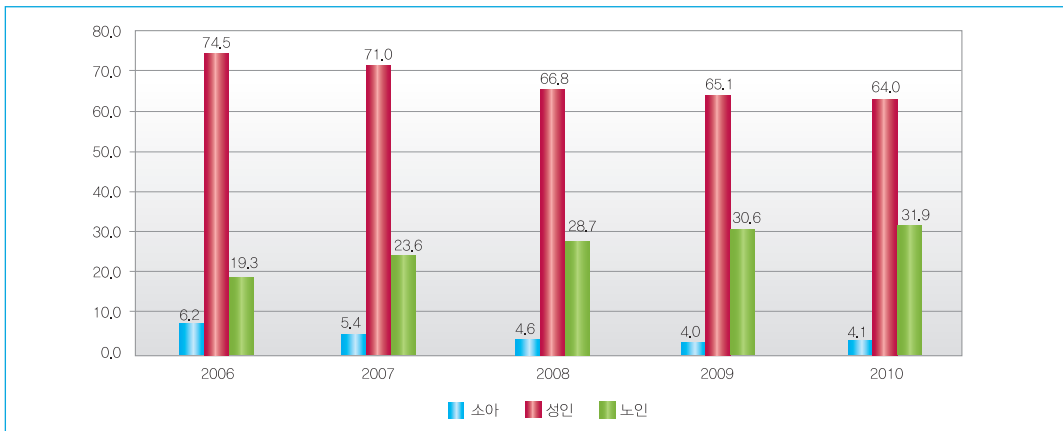
1) 의료법 상에는 '의, 치의, 한의'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양방(洋方)'이란 용어는 공식적인 용어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여기서는 의미전달의 용이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사용하였음.

[그림 1] 한방의료 이용자의 성별·연령별 분포



○ 한방의료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인구고령화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임. 최근 5년간 건강보험 한방의료 청구건수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의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소아(0~14세)와 성인(15~64세)의 구성비는 감소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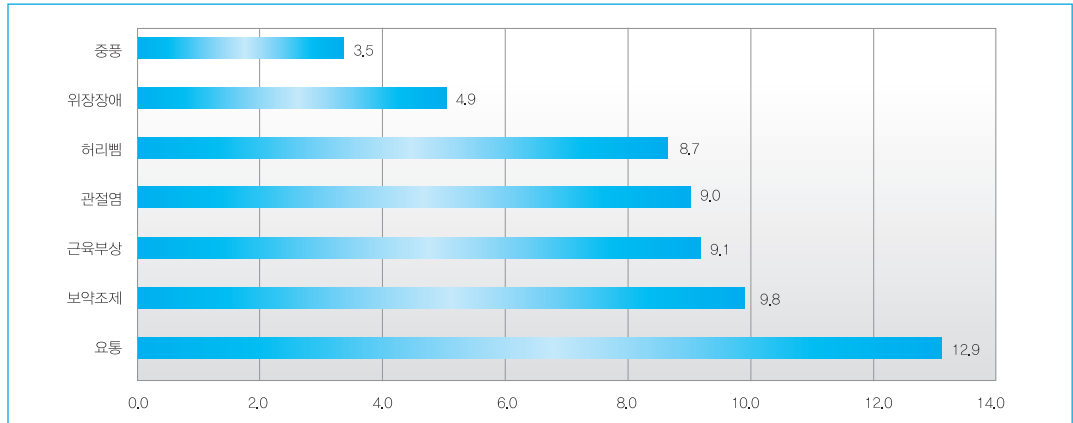
[그림 2] 최근 5년간 소아·성인·노인의 건강보험 한방의료 구성비(건강보험 청구건수 기준)



□ 한방의료 이용 목적

- 총 12,153건의 한방의료 이용 서비스를 목적별로 분류하면 질병치료 목적이 70.5%로 가장 많고, 보약 조제 등 건강유지 목적이 12.4%, 다이어트 등 미용 목적이 2.6%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목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요통'으로 전체 이용건수의 12.9%임. 뒤를 이어 보약조제 9.8%, 근육부상 9.1%, 관절염 9.0%, 허리 뻐뻐 8.7% 등의 순임
- 보약조제를 제외하면 대부분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이며, 그 외에는 위장장애 4.9%, 중풍 치료 3.5% 정도임

[그림 3] 한방의료 이용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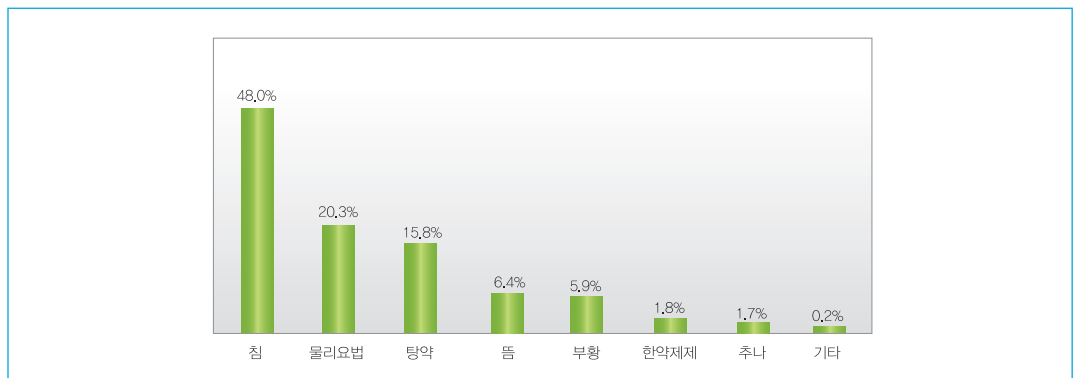


○참고로 2009년 한방의료 분야 건강보험 주요 청구건수를 보면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을 의미하는 ‘운동기질환’ 이 전체 청구건수의 68.5%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뇌혈관 및 심혈관계 질환을 의미하는 ‘심계질환’ 이 9.1%, 피부 및 외상을 의미하는 ‘외과질환’ 이 7.7%, 소화기계 질환을 의미하는 ‘비계질환’ 이 5.6%를 차지하였음

□ 주요 치료방법

○한방진료시 가장 많은 치료법은 ‘침 치료’로서 48.0%였으며, 물리요법 20.3%, 탕약 15.8%, 뜸 6.4%, 부항 5.9% 등으로 나타나 침을 사용한 치료가 전체 한방치료의 절반 가량을 차지함

[그림 4] 가장 많이 받은 한방 치료법



□ 한방외래 및 한방입원의 이용빈도, 진료비(입원비), 만족도

○한방의료(외래 및 입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용빈도와 진료비(입원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음. 조사대상 기간은 한방외래의 경우 ‘지난 3개월’ 이며, 한방입원의 경우는 ‘지난 1년’ 으로 설정하였음

- 한방외래 이용빈도는 지난 3개월간 1~3회가 36.1%, 4~10회가 33.2%로 나타났으며, 한방입원 이용빈도는 1회 입원이 78.6%로 가장 높았음. 대체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60대 이상 고령층과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 수준, 직업이 없는 계층에서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게 조사되었음
- 한방외래의 경우 진료비 지출에 있어서도 60대 이상 연령층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현재 한방의료 이용자들의 한방의료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임. 한방외래의 경우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이용자의 81.9%(매우 만족 22.0%, 만족 59.9%)였으며, 한방입원의 경우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77.2%(매우 만족 18.5%, 만족 58.7%)로 나타났음

〈표 2〉 한방외래 및 한방입원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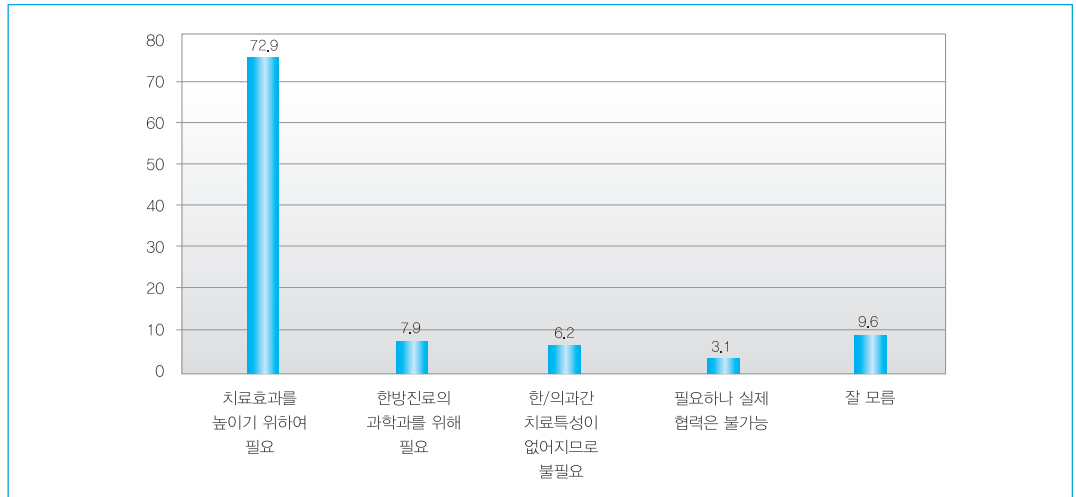
	한방외래		한방입원	
	범주	%	범주	%
이용빈도	1~3회	36.1	1회	78.6
	4~10회	33.2	2회	16.8
	11~20회	16.6	3회	3.5
	20회 초과	14.0	4회 이상	1.0
진료비 (입원비)	1만원 미만	38.3	50만원 이하	13.9
	1~10만원 미만	35.2	51~100만원 이하	23.5
	10~50만원 미만	11.5	101~300만원 이하	48.0
	50만원 이상	15.0	300만원 이상	14.5
서비스만족도 ¹⁾	매우 만족	22.0	매우 만족	18.5
	만족	59.9	만족	58.7
	보통	14.7	보통	17.4
	불만족	1.1	불만족	2.5
	매우 불만족	0.1	매우 불만족	0.3

주: 1) 한방외래 및 한방입원 서비스 만족도에 '모름'이라는 응답이 각각 2.2%, 2.7%로 나타남.

□ 양·한방협진에 대한 인식

- 의과와 한의과 양쪽의 중복 또는 혼합 활용이 일상적인 의료이용행태로 자리잡은 우리나라에서 양·한방협진은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치료효과 제고와 국민의료비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있는 주제로 평가됨
- 의과와 한의과의 협력진료 필요성에 대해서 응답자의 72.9%가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7.9%는 '한방의료의 과학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양·한방협진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
- 의과와 한의과의 치료특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협진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6.2%, 필요하긴 하나 현실적인 장애 등으로 실제 협력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3.1%로 나타남

[그림 5] 양 · 한방 협력진료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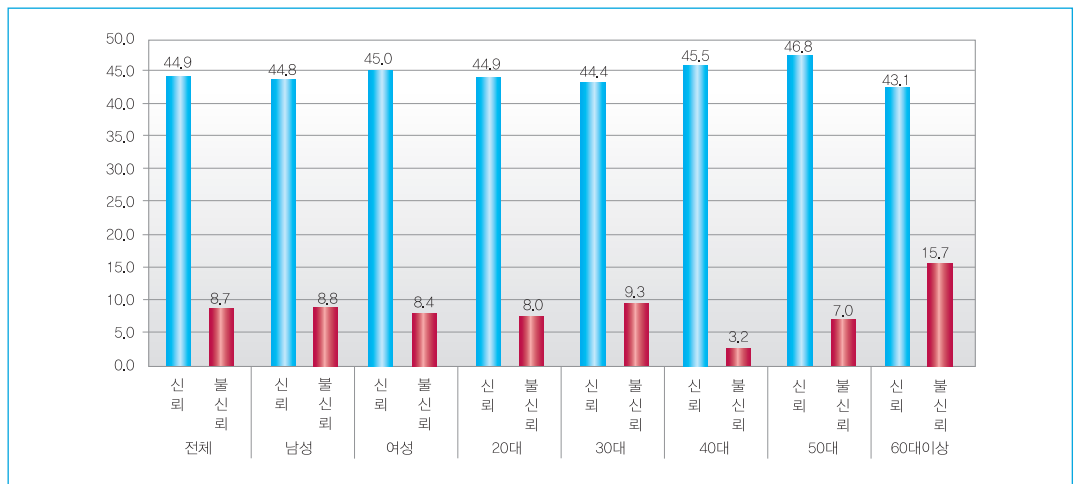
3. 한방의료에 대한 인식

□ 한방의료 신뢰도와 만족도

○ 한방의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44.9%(매우 신뢰 7.4%, 신뢰 37.5%)였으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7%(매우 불신뢰 1.7%, 불신뢰 6.9%)로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46.5%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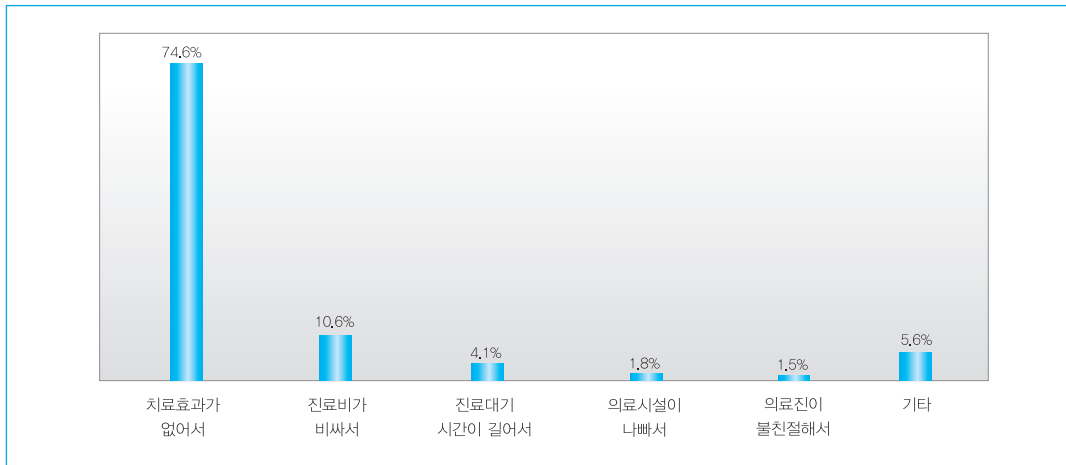
- 성별 신뢰도의 차이는 없었으나, 60대 이상의 고연령층, 주부와 무직자 등의 경제활동인구 등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유의하게 높았음
- 한방의료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에서 오히려 신뢰도가 낮았음. 이는 치료효과 기대 수준의 미충족, 건강보험 비급여에 따른 높은 본인부담 수준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그림 6] 한방의료에 대한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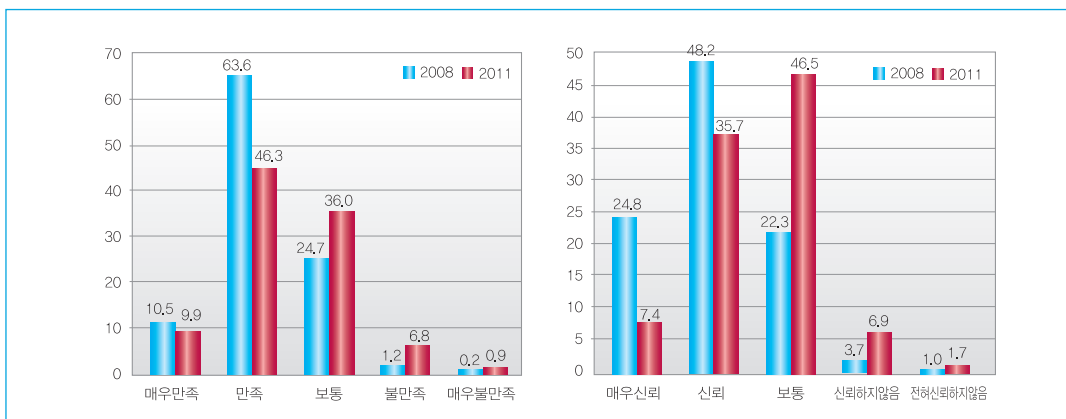
- 지금까지 받았던 한방의료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응답은 56.3%,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7.7%로 조사되었음. 50대 및 60대 이상 연령층의 불만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불만족 사유는 ‘치료효과가 없음’이 74.6%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비싼 진료비(10.6%)’, ‘긴 진료대기시간(4.1%)’ 등의 순이었음

[그림 7] 한방의료에 대한 불만족 이유



- 2008년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방의료이용조사>를 통해 제시된 결과와 비교해 보면 한방의료에 대한 만족도 및 신뢰도가 다소 낮아진 추세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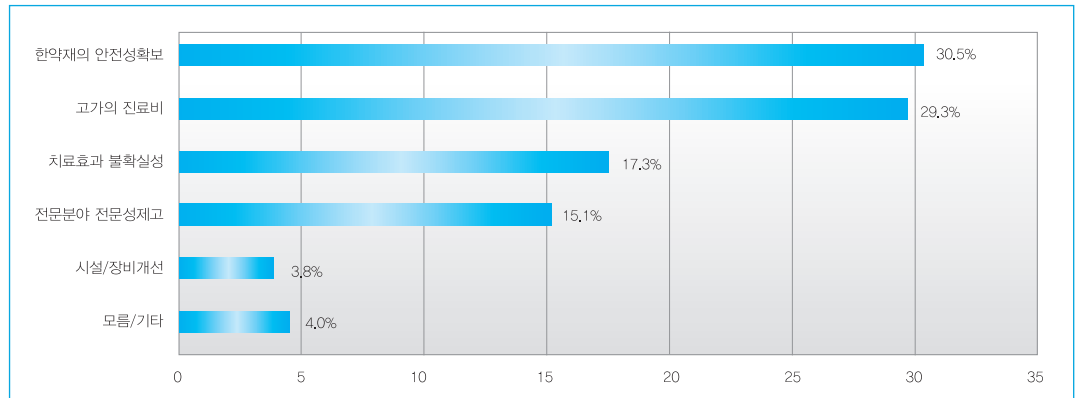
[그림 8] 한방의료에 대한 만족도 및 신뢰도 추이(2008~2011)



□ 한방의료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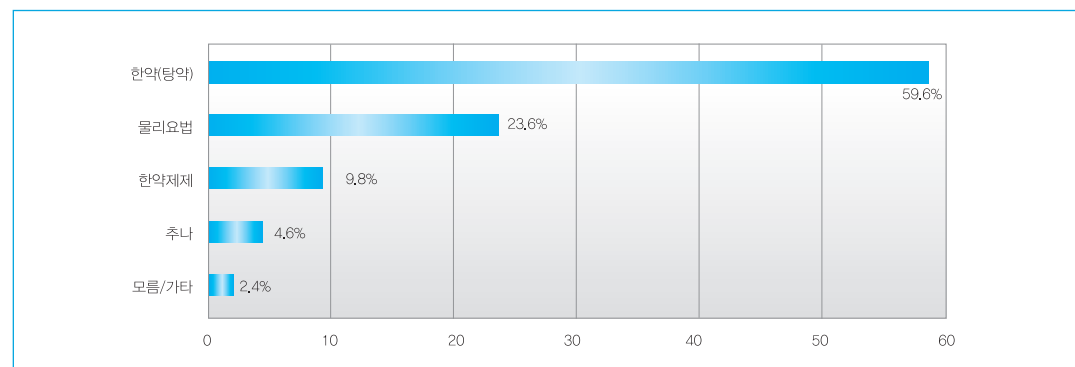
○ 현재 한방의료에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30.5%)’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고가의 진료비(29.3%)’, ‘치료효과에 대한 불확실성/과학적 근거 부족(17.3%)’, ‘전문 분야별 진료 등 전문성 제고(15.1%)’ 등의 순이었음

[그림 9] 향후 한방의료의 개선사항



○ 한방의료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건강보험 한방급여 확대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한약·탕약(59.6%)’, ‘물리요법(23.6%)’, ‘한약제제(9.8%)’ 등의 순으로 지적하였음

[그림 10] 향후 한방의료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분야



4. 시사점 및 제언

□ 한방의료는 오랜 역사를 두고 정착한 전통의료로서, 국민들은 의료서비스 현장에서 양방 의료와 함께 혼합 또는 중복하여 이용하고 있음

○ 인구고령화와 질병구조의 변동에 따른 한방의료 수요는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나, 한방의료의 과학적·합리적 근거 구축과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급여 부분 및 이에 따른 소비자 부담 해소 등은 향후 한방의료 발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과제임

- 연령별로 40~50대 중장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한방의료 이용 비율이 높으며, 최근 5년간의 건강보험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에도 한방의료 이용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한방医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외래 및 입원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음. 그러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도 조사에서 최근 3년간(2008~2010년) 한방의료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감소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결과는 한방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치료효과와 한약제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제고, 부분 급여 또는 비급여로 제공되는 물리요법과 탕약 등에 대한 부담 감소, 한방분야별 전문성 확보 등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이는 앞서 ‘한방의료에 대한 불만족 이유’와 ‘향후 한방의료 개선사항’ 등에서도 나타난 결과임
- 한방의료의 발전과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제언할 수 있음
 - 한방의료 치료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는 정부의 한의약 연구·개발 투자와 아울러 한의약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용이한 치료법부터 한방의료 서비스의 표준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이용빈도가 높으면서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한방물리요법과 탕약 등 한방의료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약제의 안전성 부분은 정부에서도 자가규격제를 완전 폐지하고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를 부여하고, 한약제의 이력을 추적하여 관리하는 등의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공공 부문의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한약제의 생산·유통·소비 전단계에서의 투명성 보장이 필요한 만큼 한의약계의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함
 - 이용자 관점에서는 양·한방협진을 통해 자원의 효과적 활용과 치료효과 제고, 국민의료비 절감 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양·한방협진은 추진 초기에 비해 다소 침체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유사한 경험을 가진 중국 및 대만 등의 전통의학과 양의학의 협진 사례와 성과를 파악하는 한편, 임상자료를 활용한 양·한방협진의 효과성 검증, 양·한방협진 인력양성 및 지불보상 등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협진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윤강재(보건의료연구실 부연구위원) 문의(02-380-814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